

특별기고

황한이

학교폭력예방교육센터 대표



소문으로 시작된 은근한 따돌림이 문제였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중생 A의 아버지는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편하게 지내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깔깔갈 웃으며 교정을 거닐고, 그날 먹은 급식중 어떤 음식이 맛있었는지 수다를 떨고, 연예인 이야기, 재밌게 읽은 책, 요새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학원은 어디인지, 좋아하는 친구가 다니는 학원을 같이 다니고 싶단든지, 최근 개봉한 영화중 재밌는 영화는 무엇인지 등을 서슴없이 웃고 떠들 수 있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아침마다 등교할 수 있을 것인지를 조심스레 물어봐야 하고, 등교한다고 하면 오늘은 학교에 아무 일이 없을지 걱정하며, 돌아올 때까지 안전부절하는 자신과 아내의 모습을 어디서부터 잘못한 것일까 싶다고 한다. 일찍 살 펴보고 보호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부모는 날마다 불안 속에서 산다.

초등학생 B는 3월부터 이유 없이 한 친구에게 맞았고, 그 친구가 다른 아이들을 시켜서 자신을 때리게 하는 행

시작은 근거를 알 수 없는 뒷담화였다

위가 1학기 내내 반복이 됐다고 한다. 아이와 함께 간 가족여행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떨어지면 죽어요?’ 등의 아이 질문에 부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비로써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모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자녀에게서 눈을 뗄 수도 없고, 억지로 학교에 가라는 말을 할 수도 없었다.

A의 담임교사는 학교폭력을 신고 한 다음 날 바로 병가를 냈다고 한다. 방학을 며칠 앞둔 담임은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받고 바로 병가를 냈고, 방학이 끝나고 복귀한다고 한다. 학교폭력 사안과 학생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담임교사가 없으니, 임시교사와 학생부장 선생님이 사건과 관련된 상담을 거쳐 처리했다. 사건조사를 마치고 학교측의 증제로 가해 관련 학생들의 사과를 받을 자리가 마련됐다. 가해 아이는 ‘미안해’라고 말하지만, 진심으로 하는 사과가 아닌 것 같아 용서하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피해 학생은 가해 아이와 함께 폭행에 가담했던 친구들이 두려워 신학기가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혼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엄마와 같이 자고 있다. ‘은파’라고 말하는 은근한 따돌림은 증명하기가 어렵고, 회복도 더디고 힘들다.

앞의 두 사례는 진위를 알 수 없는 소문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소문의 근원은 뒷담화였다. 어느 순간 소문은 진

실이 되고, 피해 학생은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은 우울, 불안, 분노 등 심리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그러나 뒷담화로 시작된 학교폭력은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뒷담화로 인한 피해 학생에 대한 이해도도 낮다. 피해 학생에 ‘괜찮아 보이네! 잘 지내고 있네. 학원도 다니고, 다른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하는 말을 쉽게 하는 것을 본다.

피해 학생 부모는, 아이의 회복을 돕기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일상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녀의 생활 회복을 도우며, 이전에 밝고 행복했던 아이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보낸다. 그러나 아이의 회복은 더디고, 순간순간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자녀를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 가슴이 찢어진다.

우리는 뒷담화로 인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민감도가 많이 떨어진다. 주변인들은 피해 아이들이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는 외관의 모습만 보며, 그 내면의 심리적 어려움은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가해 학생은 뒷담화가 별거 아니라며 다른 큰 잘못과 비교해 자기 잘못은 별것 아니라고 축소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본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뒷담화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의 시작이 뒷담화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고

진호건

전남도의원



최근 푸드테크(Food Tech)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식품과 첨단기술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투어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대체 단백질, 푸드 프린팅 등 혁신 기술이 식품산업 전반에 도입되면서 전통적인 농·수·축산업도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인 네덜란드의 와게닝겐 푸드 밸리(Wageningen Food Valley)는 정부 주도의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로, 농업과 식품 분야에 특화된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와 혁신 스타트업을 유치하여 세계 농업혁신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네덜란드는 이를 통해 정밀농업, 스마트팜, 식품 안전 및 유통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구축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남은 풍부한 농·수·축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푸드테크산업의 최적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남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남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푸드테크산업은 단순한 식품 가공을 넘어 기술을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식품 공급 체계를

전남, 푸드테크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준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푸드테크산업은 단순히 식품산업을 혁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현재 세계는 인구 증가와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 부족과 영양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다. 전통적 농업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워, 푸드테크산업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체 단백질, 배양육, 곤충 단백질 등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개발은 물론, 스마트 농업과 AI 기반 정밀농업 기술을 활용하면 생산 및 유통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 식량 부족과 기타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채식주의자와 식품 알레르기 인구가 늘어나면서 식물성 고기나 유제품 대체식품과 같은 새로운 식품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푸드테크 기술을 활용하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식품 이력 관리 및 AI 기반 검사 기술을 통해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스마트팜과 로봇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 분야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조례 제정 이후 전남도에서는 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추

진해야 한다. 또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연구개발(R&D)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 대학, 연구소, 기업과 연계하여 푸드테크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푸드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푸드테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기술 개발 및 실증,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하여 푸드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푸드테크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험과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푸드테크산업은 단순한 식품 가공을 넘어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푸드테크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도 이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 전남이 가진 풍부한 농·수·축산 자원을 활용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한다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제정될 조례가 전남 푸드테크산업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푸드테크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전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독자투고

‘픽시 자전거’ 안전 주의해야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로 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해당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브레이크가 없어 페달을 멈춰 자전거를 서게 해야 한다. 상체를 숙여 무게중심을 앞바퀴 쪽에 실은 다음 다리에 힘을 줘 페달을 멈추면 타이머가 지면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멈추게 되는데, 이 기술을 스키딩이라 한다.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제동 거리가 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 때문에 사회적으로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실험에 따르면 시속 10km로 달릴 때 브레이크가 없을 경우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약 5.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레이크를 장착하지 않은 픽시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는 것은 불법이다. 더욱이 초보자나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 픽시 자전거를 안전하게 다루기 어렵다.

차량도 보행자도 많은 도심의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타면서 갑작스런 정지나 방향 전환이 힘들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공장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사고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보호자의 관리와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복 고충경청서 대서마을소장

OPINION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사설

전남 국립의대 설립 2027년엔 추진돼야

전남도가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했던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한다. 정부가 의과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전제로 내년 전국 의과대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사실상 의대 신설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남국립의과대학의 내년 개교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힌 것도 그같은 맥락에서였다.

전남도는 그동안 2026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한 의과대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30년 넘게 요구해온 지역 숙원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전남은 인구가 180만명이 넘지만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이다. 인구 수가 비슷하거나 적은 전북(인구 175만명) 2개, 충북(159만명) 2개, 강원도(152만명) 의대가 4개나 있는데 말이다. 이는 전남의 의사 수 부족으로 이어져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74명으로, 전국 평균인 2.18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그동안 끊임없이 국립의과대 신설을 정부에 요구,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긍정적인 답변까지 받아내며 목포·순천대 통합까지 일궈내며 후속 절차를 밟아왔지만 결국 지속된 의·정 갈등과 대통령 탄핵 사태 때문에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제 전남도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의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6월 치러질 조기 대선에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1호 공약으로 선정하고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전달,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 중에는 전남도와 목포대·순천대, 의료계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의대설립 공동준비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의료계 설득에 나서는 한편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반영한 자료를 만들어 국회와 정부 등을 상대로 국립 의과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도는 2027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전남의 이같은 현실이 반영되면 의대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전남의대설립이 2027년에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정부와 의료계의 관심이 절실하다.

농협 ‘도농상생 공동사업’ 눈에 띄네

농협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도농상생 공동사업’이 눈에 띈다. 소비 시장을 보유한 도시의 농축협과 생산기반이 있는 농촌의 농축협이 자본을 공동 투자해 다양한 경제사업을 하면서 도시의 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가 모두 윈윈하는 새로운 유통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도·농 농협 간 상생협력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는 얘기가.

농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 도시농협과 농촌농협간의 도농상생 공동사업은 총 7건으로 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판매장, 하나로마트, 산지공판장, 주유소 등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서광주농협과 화순 농주농협이 합작해 지난 2023년 3월 문을 연 농주농협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로컬푸드직매장)다.

서광주농협(30억원)과 농주농협(55억원)이 공동으로 85억원을 투자한 이 센터는 지역 최초 도농상생 공동투자 사업 모델로 로컬푸드 직매장과 생필품을 할인판매하는 하나로마트, 공동작업장, 힐링플라워, 로컬카페, 공유부엌, 농가교육장 및 체험장 등을 갖추고 있다. 2023년 10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지난해 116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12.6%의 성장률을 보이며 소비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농촌농협들에 새로운 판로를 제공했다.

도시·농촌 농협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들어 생산한 농산물 판매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4월 광주 하남농협과 광양지역 5개 농협이 3억6000만원을 공동출자에 설립한 광양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광양 매실 판매를 주로 하고 있다.현장 판매는 물론 홈쇼핑, 공영쇼핑, NS쇼핑 등 TV홈쇼핑 판매도 실시하고 있다. 광주 송정농협과 영암지역 8개 농협도 8억 1000만원을 공동 출자에 지난해 7월 영암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들어 무화과·고구마·풋고추·멜론·배·단호박 등을 판매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이들 사업 투자금의 80% 이내에서 자금을 최대 200억 원까지 가장 3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들 사업이 사업초기라 아직까지 큰 성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 등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생산을 하게 하는 등 유통에 선순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으로도 이들 사업이 더욱 다변화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취재수첩

예술인 지원사업 정책 개선돼야

김다경

문화체육부 기자



때때로 지역 문화예술인들로부터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진행되는 과정 중 실무자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고충을 들곤 한다.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정산 등 실무과정에 정해진 가이드라인이나 교육이 없다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찾아 해내야 하는 것이다.

어렵게 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한다 해도 떨어지고 나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피드백을 받을 방법이 없다보니 점차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모 예술인은 지원사업을 통해 공연을 올린 후 제출해야 할 정산작업이 까다로워 따로 돈을 주고 세무 전문가에게 일을 맡긴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예술인들은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기획서 작성부터 정산까지 꽤 복잡한 실무 과정을 거쳐

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자체 등에서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획 역량 강화와 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한 실무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예술인들에게 작품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은 필수적이다. 자금 여유가 없는 예술인들이 지원 없이 공연이나 전시 등을 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이들이 느끼는 지원사업과 현실 사이 괴리감이 존재한다.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형식적인 지원사업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술인들의 역량 발전 및 활동 지원, 나아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데 있다.

이들이 마음 놓고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실무과정에 불필요한 작업은 최대한 간소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또 진입장벽을 낮춰 신진예술인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중견예술인의 꾸준한 발전을 도모하며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각도의 지원사업이 더 많아져야 한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